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의 경기도 동서남북 6대 공약

- ①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조성
- ② 1기 신도시를 고품격 스마트 신도시로 UP!
- ③ 경기 남부 첨단산업 반도체 허브로 젊은 일자리 창출
- ④ 경기 북부의 희생에 대한 확실한 보상
- 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싱그러운 경기 동부
- ⑥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오전 9시, 경기도 용인에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을 내세우며 경기도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이자 축소관인 경기도의 성장을 강조하며 ‘GTX 플러스 프로젝트’ 를 공개했다. 이는 수도권 전역을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고 빠르게 이어 경기도민 누구나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는 초연결 생활권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활력을 극대화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첨단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면서 노후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 동서남북 권역별로 특화된 공약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자연과 환경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6대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3기 신도시 입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여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지켜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기존 노선과 연계한 GTX+(플러스) 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해 수도권 교통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남부 구간은 병점, 오산, 평택으로 연장을,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한다.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가 제안하였던 대로 강남~하남까지 정상화한다. 추가로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고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선을 서울대 관악산역부터 안양까지 잇고, 3호선 북부를 대화~금릉~경의중앙선으로 연결하며, 남부는 성남·용인·수원까지 연결을 추진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한다.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7호선(옥정~포천), 8호선(성남판교~서현~광주오포), 9호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신설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

소사·대곡선의 파주 연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천~광명선 신설을 원활히 추진하며, 별내선(남양주 별내~구리~암사~성남 모란)과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과 부천 대장~서울 홍대 구간을 잇는 대장·홍대선 사업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적극 지원하고, 양재 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도 추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 남부 공항 건설을 검토한다.

둘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킨다.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자족형 도시로 재설계하고, 용적율 500% 적용 등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도시별로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경기 남부권은 **첨단산업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한다.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벨트’로 묶어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 융합 혁신클러스터로, 판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육성한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화성과 오산·기흥·평택·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만들어 경기 남부를 명실공히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격상한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넷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희생이 요구됐던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을 추진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구축하고 DMZ는 물론 도라산, 임진각과 한탄강 유역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지역 먹거리를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파주 영어마을에는 4차산업혁명대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또한 접경지역을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기 순환철도망의 고양시~의정부 구간과 탑석~별가람~별내를 잇는 의정부~남양주 구간의 연결 지원 ▲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 사업 조속 재개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 지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만들기 위해, 하남~양평 간 고속도로, 국도 3호선 이천~여주 사업, 수서~광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도 적극 추진해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경기 동부 전역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와 헬스 투어 힐링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생태친화적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고, 스마트 팜 보급과 첨단농업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기 위해**, 안양천, 안성천과 오산천, 경안천, 문산천 그리고 한탄강 등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만들어 도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키로 했다. 또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해 문화와 휴식이 있고 상상력 넘치는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공약을 96%이상 지켰다는 실천가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이번에 제시한 약속도 꼭 지킬 것임을 다짐했다.